B. B. 워필드 『성경론: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이경직·김상엽 역)

워필드 · 부록 3 성경의 권위와 영감

B. B. 워필드 『성경론: 성경의 영감과 권위』(이경직·김상엽 역, CLC), 부록 3 「성경의 권위와 영감」, 텍스트판 300–302쪽
(각주에 따르면 1889년 9월 *Westminster Teacher*에 실린 짧은 글)

🧭 흐름 한눈에

워필드는 “기독교는 책을 가진 종교”라는 말에서 출발한다. 교회의 유일한 기초와 권위는 그리스도시다. 다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사도들을 세워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단순한 사실 하나에 서 있다. 그리스도께 임명받은 사도들이 이 책들을 교회에 '믿음과 삶의 규범'으로 넘겨주었다는 사실이다. 교회가 권위를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썼느냐가 기준인 것도 아니다. 이어서 워필드는 사도들이 성령의 주권적인 인도 아래 기록했다고 말한다. 이것이 영감이고, 영감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끝으로 그는 영감이 없어도 권위는 성립한다는 점을 먼저 인정한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영감으로 그 권위를 더 단단히 하셨고, 지금도 성경으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결론짓는다.

📜 절별 정리

(원문에는 소제목이 없어 논증 단락을 따라 일곱 절로 나누었다.)

📜 1. '책의 종교'가 아니라 '책을 가진 종교'

워필드는 기독교를 흔히 '책의 종교'라고 부르는 표현을 조금 고친다. 기독교는 책에서 생겨난 종교가 아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고, 그 결과 특정한 책을 '가지게 된' 종교다. 교회의 유일한 기초이자 머리이고, 교회 안의 유일한 참된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우레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어 세상에 보내셨다. 사도들의 입으로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도가 그 직분을 맡아 행하고, 말하고, 기록한 것은 모두 신적 권위를 지닌다.

1. 기독교의 출발점은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2. 그리스도만 교회의 기초·머리·권위다
3. 그리스도는 사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셨다
4. 사도의 말은 그리스도가 하신 말이다
5. 직분으로 한 말과 글이라 신적 권위가 있다

> **에베소서 2:20**
> (장절 없이 암시) 사도와 선지자는 기초, 그리스도는 모퉁잇돌이라는 그림의 출처
>
>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 2. 권위의 뿌리 — "사도들이 규범으로 주었다"

워필드의 핵심 논증은 단순하다. 첫째,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로 교회를 세우도록 임명받았다. 둘째, 사도들은 그 임무를 하면서 교회에 성경을 주었다. 이 두 가지를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면 성경 권위의 문제는 풀린다고 그는 말한다. 성경 뒤에는 사도들의 권위가 있고, 사도들 뒤에는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입법자'인 사도들이 교회에 준 '법전'이다. 여기서 워필드는 중요한 구분을 덧붙인다. 권위의 근거는 '사도가 직접 썼느냐'가 아니다. '사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과 실천의 규범으로 교회에 내주었느냐'가 근거다.

1. 성경 권위는 사도가 넘겨준 사실에 선다
2. 성경 → 사도 → 그리스도로 권위가 이어진다
3. 성경은 입법자가 교회에 준 법전이다
4. 기준은 '누가 썼나'가 아니라 '누가 주었나'

📜 3. 교회가 성경을 정하지 않는다 — 이정표 비유

워필드는 성경 권위가 교회의 권위에서 오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한다. 교회는 사도들에게서 규범으로 받은 것을 '증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증언이 법에 권위를 주지는 않는다. 법이 원래 가진 권위를 겸손하게 인정할 뿐이다. 그는 이것을 길과 이정표로 설명한다. 이정표는 바른 길을 알려 주지만 길을 바르게 만들지는 못한다. 길이 이정표의 방향을 정하지, 이정표가 길을 정하지 않는다. 이어서 “교회가 성경보다 먼저 있었으니 교회가 성경에 의존할 수 없다”는 반론에 답한다. 문제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성경이 어디서 나왔느냐다. 교회의 산물인가, 아니면 교회를 세운 권위의 산물인가? 교회는 사도의 권위보다 먼저 있지 않았다. 바로 그 권위로 사도들이 교회에 성경을 주었다.

1. 교회는 성경 권위를 인정할 뿐 주지 않는다
2. 이정표가 길을 만들지 않는다
3. 성경이 교회를 정한다
4. 질문은 '언제'가 아니라 '어디서 왔나'
5. 교회는 사도 권위보다 먼저 있지 않았다

“교회가 성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교회를 '결정'한다.”

📜 4. 어떤 책이 성경인가 — 구약 전체와 점점 더해진 신약

워필드는 “사도성이 성경의 권위를 결정한다”고 말한다. 사도가 교회에 규범으로 준 책은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로 지켜져야 한다는 뜻이다. 사도들이 조상에게서 받은 구약 전체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교회에 넘긴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사도들은 이 옛 율법에 새 율법(신약)을 조금씩 더했다. 그 증거는 두 갈래다. 직접 증거는 사도들 자신의 글이다.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를 구약과 같은 성경으로 부르고, 바울은 누가복음과 신명기를 나란히 '성경'으로 인용한다. 사도들은

가르는 시금석이었다. 간접 증거는 초대 교회다. 사도 시대 교회가 어떤 책을 의심 없이 권위 있게 받아들였다면, 그 책은 사도가 그런 권위로 넘겨준 것과 사실상 같다.

1. 사도성이 성경의 권위를 결정한다
2. 구약 전체는 사도가 그대로 넘겨주었다
3. 신약은 사도가 점점 더해 준 새 율법이다
4. 직접 증거: 사도들이 서로를 '성경'이라 부름
5. 간접 증거: 초대 교회가 의심 없이 받아들임

> **베드로후서 3:16**
> 베드로가 바울의 편지를 '다른 성경들'과 같은 줄에 놓는다
>
>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 **디모데전서 5:18**
> 신명기 25:4와 누가복음 10:7을 함께 “성경에 일렀으되”로 인용한다. 신약 책이 구약과 같은 성경이라는 증거
>
>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 **고린도전서 14:37**
> 바울이 자기 글을 '주의 명령'이라 하고, 이를 인정하는 것이 신령한 자의 표지라고 말한다
>
>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 **고린도후서 10:8**
> 바울이 주께 받은 권위로 말한다고 밝힌다
>
>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데살로니가후서 2:15

말과 편지로 받은 가르침을 지키라는 명령. 기록이 권위를 가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데살로니가후서 3:6-14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편지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멀리하라고 한다. 권위와 시금석

6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7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8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9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10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11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

갈라디아서 1:7-8

하늘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사도 복음이 천사보다 위에 있다

7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성은 성경의 권위를 결정한다."

📜 5. 사도들은 성령 아래서 썼다

사도들은 아무 준비 없이 입법자가 된 것이 아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뜻을 철저히 배웠고, 사역하는 동안 여러 보호 장치와 함께 성령의 계속된 인도를 받았다. 워필드는 사도들의 문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을 짚는다. 저자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공식 대리자로 내세운다는 점이다. 그들은 혼자 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썼다고 일관되게 증언한다. 워필드는 세 가지를 함께 놓고 본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초자연적 인도다. 또 하나는 사도들이 글을 쓸 때도 신적 권위로 말한다고 주장한 구절들이다. 마지막 하나는 그들이 자기 글을 구약과 같은 성경으로 둔 사실이다. 이 셋을 합치면 결론은 분명하다. 사도들은 교회의 법을 세우는 일을 하면서 자신들이 성령의 주권적 은혜 아래 있었다고 주장했다.

1. 사도들은 먼저 그리스도께 철저히 배웠다
2. 사역 내내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다
3. 그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썼다
4.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를 미리 약속하셨다
5. 사도들은 자기 글을 구약과 같은 급으로 봤다

> **마태복음 10:19-20**
>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이시라는 예수의 약속
>
> 19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 **마가복음 13:11**
> 같은 약속의 마가복음판. 원문 표기 '막 8:11'은 내용상 13:11의 오기로 보인다
>
>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 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 **누가복음 21:14**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요한복음 14장, 16장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며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원문은 장만 표기. 14:26, 16:13이 대표 구절)

요한복음 14장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5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

요한복음 16장 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2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3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4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5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6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

고린도전서 14:37

바울이 쓴 것이 '주의 명령'이라는 주장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데살로니가후서 3:6

'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원문의 두 번째 표기 '살전 3:6'은 앞 표기와 내용상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베드로전서 1:12

복음 전파가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 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3:16

구약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전서 5:18

신약 책도 구약과 같은 '성경'이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베드로후서 1:20-21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원문은 1:20 표기, 해당 내용은 21절)

20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후서 3:16

바울 서신은 '다른' 성경, 곧 같은 성격의 새 성경이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 6. 영감이란 무엇인가 — 사람의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다

워필드는 앞 절의 내용을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영감”이라고 정리한다. 영감은 사람이 쓴 몫을 지우지 않는다. 바울은 바울로, 요한은 요한으로 썼다. 다만 사람 저자 뒤에 하나님이라는 저자가 함께 계신다. 성령께서 기록 과정 전체를 이끄셔서 그들이 쓴 말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다. 그 결과 성경은 바울이나 베드로의 개인 의견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 전하는 계시다. 그래서 교회는 이 책들을 '하나님의 대리자가 전해 준 문서' 정도로 받지 않았다. 하나님이 대리자들을 통해 친히 주신 말씀으로 받았다. 교회가 성경의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 이유가 여기 있다.

1. 영감은 사람 저자를 지우지 않는다
2. 사람 저자 뒤에 하나님 저자가 함께 계신다
3. 성령이 기록 과정 전체를 이끄셨다
4. 성경은 개인 의견이 아니라 계시다
5. 그래서 교회는 모든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 7. 영감이 없어도 권위는 선다 — 그러나 하나님은 더 주셨다

워필드는 순서를 정리한다. 성경 권위를 증명하려고 영감을 먼저 증명할 필요는 없다. 영감되지 않은 규범도 여전히 규범이기 때문이다. 사도가 넘겨준 법이라는 사실만으로 권위는 선다. 그러나 영감이 사실이면 권위는 훨씬 강해진다. 하나님은 대리자들을 거쳐서가 아니라, 영감된 말씀인 성경 자체로 지금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워필드는 한 가지를 더 양보한다. 영감된 기록이 없었더라도 기독교는 세워지고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어떤 수단으로든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곳에 기독교가 있고, 사람들은 듣고 믿고 구원받는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구속을 보여

보존된 전승이 아니다.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확신을 주는, 지금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1. 권위 증명이 영감 증명을 기다리진 않는다
2. 영감은 권위를 더 단단하게 한다
3. 성경이 없었어도 그리스도는 전해질 수 있다
4. 하나님은 오류 없는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다
5. 성경은 지금 살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 “영감되지 않은 규범도 규범이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영감
성령께서 성경 저자들이 쓰는 과정 전체를 이끄셔서, 그들의 글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일.

θεόπνευστος(테오프뉴스토스)
디모데후서 3:16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글자 그대로는 '하나님이 숨을 내쉬어 나온'이라는 뜻이다. 워필드는 이 단어를 같은 책의 다른 장에서 길게 연구한다.

γραφή(그라페)
'기록된 것'. 신약에서는 '성경'을 가리킨다. 베드로후서 3:16의 “다른 성경들”이 이 단어다.

규범 / 정경
교회의 믿음과 삶을 재는 '잣대'로 받은 책들. 헬라어 κανών(카논, 잣대)에서

사도성
어떤 책이 사도들에 의해 교회에 규범으로 주어졌다는 성격. 워필드에게는 이것이 성경 권위를 정하는 기준이다.

인간 저자성 / 하나님 저자성
성경에는 사람 저자(바울, 요한 등)와 하나님이라는 저자가 동시에 있다는 생각.

무오성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성질. 이 장은 “영감된 말씀에 오류가 없다는 신뢰성”이라는 표현으로 한 번 언급한다.

축자영감
생각만이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까지 영감되었다는 견해. 이 장은 이 용어를 쓰지 않지만, “성경 안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문장이 같은 생각을 담고 있다.

모퉁잇돌
건물 전체의 방향과 무게를 잡는 첫 돌.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자리를 가리키는 그림 언어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성경의 권위는 그리스도께 임명받은 사도들이 이 책들을 교회에 규범으로 주었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 교회는 그 권위를 인정할 뿐이며, 기준은 '누가 썼나'가 아니라 '사도가 넘겨주었나'다.
- 사도들은 성령의 주권적 인도 아래 썼다. 이것이 영감이고, 그래서 성경의 모든

- 권위는 영감 없이도 서지만, 하나님은 영감으로 그 권위를 오류 없는 확실함으로 굳히셨다.
- 그러므로 성경은 지금도 살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9편 ·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믿었다 · 영감 교리의 역사와 비평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